

올 한해 익산 10대 뉴스는?

13년 대장정 끝낸 왕궁 축사 매입사업, 시민이 뽑은 최고 뉴스 선정

익산시민이 뽑은 올해 최고의 지역 소식은 13년의 대장정을 끝낸 왕궁 축사 매입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는 한 해 동안 시정 발전을 견인한 주요 사건들을 모아 '2023년 익산 10대 뉴스'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10대 뉴스 설문은 익산시 누리집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3일 동안 진행했으며 시민 1,764명이 참여했다.

실문 결과 '13년의 대장정을 끝낸 왕궁 축사 매입사업'이 가장 많은 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왕궁 축사 매입사업은 지역 주민의 숙원이자 난제로 이를 과감하게 추진해 온 시는 최근 해당 구역 모든 축사 해운 시는 최근 해당 구역 모든 축사 해운 시의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 지었다. 시는 앞으로 환경부 자연환경 복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왕궁 농원에 대한 체계적 생태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2위와 3위에는 익산 국가식품플러

스터 2단계 사업, 국가기관 후보지 선정'과 '전북 익산형 일자리, 농식품 상생 모델 완성'이 각각 선정됐다.

익산 국가식품플러스터 2단계 사업 추진 확정으로 익산은 글로벌 식품시장의 새로운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 최초 농민이 상생 주체로 참여하는 익산형 일자리는 익산 핵심 산업인 농업과 식품산업의 장점을 결합한 대형 일자리 프로젝트로서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4위로는 '익산 마라사지, 대한민국 대표 문화유산 자리매김'이 뽑혔다.

익산 마라사지는 아칸관림의 새 지평을 연 '2023 익산 마라사지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을 비롯 마라사지에서의 '담소' 등 문화유산을 활용한 각종 축제와 행사 개최를 통해 올 한해 전국 방문객 수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5위에는 '익산 청년시청, 대한민국 청년정책 선도'가 올랐다. 지난해 개

칭한 익산 청년시청은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특목히 해내며 청년정책 벤치마킹 선진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어 6위는 '안정을 넘어 대도시의 시대'가 차지했다. 익산 최초 3선 정현을 시장이 이끄는 민선 8기는 준비된 안정적 도시의 면모를 보여주며 대도시의 시대를 열고 있다.

이 밖에도 7위에 재난관리 으뜸 도시로서 위상을 높인 '익산시 재난관리 전국 최고'가, 8~9위에 '아칸관림의 도시' 익산, 대한민국 발발곡곡 3개소 선정'과 '2023 익산분단의 해 운영, 익산시 관광객 수 크게 증가'가 각각 선정됐고 마지막 10위는 '서동생가터서 국내 최초 중국 동전 오행대포 출토'가 뽑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시 10대 뉴스 선정으로 2023년 한해를 정리하고 되돌아보며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준 기자



시장 면담실서 김영준 군산시장과 김기용 서천군수가 만나 이번 사업에 대한 양 시군 간 협력 방안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

군산 · 서천 간 상생 발전 협약

군산 개야도~서천 유부도... 수돗물 공급 해저관로 설치 추진

군산시가 19일 서천군과 상생발전을 위한 수돗물 공급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서천 유부도와 군산 개야도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공동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군산시에서 유부도, 개야도까지 해저관로 설치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날 오전 시청 4층 면담실에서 김영준 군산시장과 김기용 서천군수가 만나 이번 사업에 대한 양 시군 간 협력 방안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사업은 유부도와 개야도의 고질적인 식수난 해결을 위해 서천군보다 가까운 군산에서 유부도까지 해저 관로관을 설치해 수돗물을 공급하고 해저관로 사업비와 유지 관리비를 양 시군이 함께 부담해서 사업비 절감 효과를 이룩하고자 추진됐다.

총사업비는 240억이며 이번 협약으로 유부도까지 통합관로 140mm(Φ) 2km의 사업비 140억은 양 시군이 공동부담하고 서천군이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또, 유부도에서 개야도까지 사업비는 90억으로 군산시에서 공사를 시행, 유부도까지의 해저관로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양 시군에서 공동으로 부담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 시군의 관내에서 이뤄지는 상대 지자체의 공사에 대해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에 대해 최대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유부도와 개야도 뿐만 아니라 추후 연도까지 해저관로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 통

익산시, 보육 유공 국무총리 기관 표창 수상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익산시가 보육 환경과 관련한 지자체 특수시책을 개발하고,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는 등 관련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익산시는 2023년 보육 유공자 정부 포상수여식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3년 보육 유공자 정부포상에서 △정부 보육정책 수립·집행 △지자체 특수시책 개발 △보육교사 처우개선 △어린이집 안전관리 △보육관련 제도개선 수범사례 등 보육사업 발전에 적극 기여한 우수 지자체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익산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18개소와 우수 열린 어린이집 86개소, 공공형어린이집 18개소, 아칸관림어린이집 67개소, 시간제보육 제공 어린이집 7개소(14개반)를 운영하고 있다. /*익산=이재준 기자

군산시지사보협의체 실무분과 활성화 사업 실시

군산시와 군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9일 9개 실무분과 위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실무분과 활성화 사업을 시행했다.

이번 활성화 사업은 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년실무분과를 포함한 9개 실무분과의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 및 사회복지 관련 특강 등으로 이뤄졌으며, 2024년 연간 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실무위원들은 "지역사회 사회복지 공동체를 만드는데 우리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임하는 시간이었"고 전했다.

시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곽중민 모필장,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익산시 여산면서 붓 공방 · 전시장 운영... 3대째 전통 기술 계승

익산시는 전통 붓을 만드는 모필장(毛筆匠) 곽중민씨(여산면)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곽중민씨는 3대째 전통 붓을 만들고 있는 모필장 가문의 후손이다. 선친으로부터 가지런하면서 힘 있는 붓을 만드는 특별한 기술력을 배워 이를 작업으로 삼고 있다. 현재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에 거주하는 곽씨는 붓 공방과 전시장을 운영하며 가문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모필은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도구를 일컫는 말로, 주로 짐승의 털을 추려 모은 뒤 이를 대나무 등으로



만든 붓에 고정해 만든다. 모필장은 붓을 전통 기법대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나, 그러한 기능을 가진 장인을 뜻한다.

시는 이번 모필장 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전통문화 계승에 전념해 온 전승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제작 현장에 생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은 이번 지정으로 기존 △맹화장(이삼열) △석장(권오달) △여산호산현(이연호) △익산키세배 △익산성당포구농악 △익산뚝밭노래 등을 포함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총 7종을 보유하고 됐다.

이 밖에도 △리향제춤류 △리리농악 2개 종목이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익산=이재준 기자

익산시대기업 초청... 구직 청년 취업 전략 전수

익산의 대표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성공 취업 디아로움 취업박람회'가 출범 1년을 앞두고 대기업 현직자를 대거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 청년 구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익산시는 19일 익산 청년시청에서 '디아로움 성공취업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청년 구직자에게 취업 준비 전

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LG디스플레이와 LG화학 삼성디스플레이 HD현대인프라코어 한국전력공사 등 8개 대기업·공사에서 근무 중인 현직자들이 초청됐다. 이들은 각 회사의 직무정보를 구직자에게 공유하고, 합격 비법을 전수하는 취업 멘토링을 진행했다.

앞서 시는 화요일 일대일 멘토링에 참가할 청년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았다. 또 청년들이 다양한 직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외영업 △생산관리 △연구개발 △인사·총무 등 관련 직무를 폭넓게 구성해 실질적인 실전 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했다. /*익산=이재준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